

오피니언

월/요/광/장

윤병갑



“육십에 철이 든다”라는 말이 있다. 예전 육십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팔십 이상으로 봐야하는데 이는 세상을 떠날 때가 돼서야 철이 든다는 말인가 보다. 사전적 의미의 ‘철’이란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힘, 한 해 가운데 어떤 일을 하기에 좋은 때를 이르는 말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똑같은 유머도 타이밍을 잘 살리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말씀씨가 확연한 차이가 있듯이 흘러는 말과 작은 행동 속에도 때와 시기를 잘 구별할 때 차별화된 결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작은 일인건, 큰일인건 때를 구분할 줄 안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몰입하고 집중했을 때는 왜 수가 보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육십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무에보용’이라는 사자성어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음미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보배라도 도가 지나치면 막힘이 있는 법, 따라서 재물과 사랑, 그 어떤 사물에너무 집착하지 말고 육십으로부터 중용을 지키라

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결국 균형 잡힌 생각과 사고하는 능력은 우리를 육십으로부터 해방되고, 그것은 결국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 나무와 꽃, 그리고 자연이 단

재테크를 계획하고 실천할 때다

한번이라도 때를 거슬러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결국 모든 것에는 흥망성쇠가 있다. 사람과 기업, 국가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때에 맞추어 조적을 구성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만 마지막의 때가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시기에 있을까.

우리의 반세기 역사는 세계사의 200년과 같다. 경제사적으로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이제 정보사회에 와 있다. 우리의 건국사는 압축경제의 역사였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IT산업과 세계의 변

방에서 중심으로 성장하는 자동차산업,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정유와 석유화학기업들의 약진, 어땠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아닌가.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날씨가 좋을 때 미리 우산을 준비하라는 속담을 되새겨볼 때는 아닌지.

한국은행이 지난 2월 22일 내놓은 2011년 4분기 중 잠정적인 가계신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4분기말 가계빚이 처음으로 900조원을 돌파했다. 예금은행 대출 가운

데 연 10%이상 고금리가 적용된 대출이 4.6%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수준이라는 것이다.

우리 광주·전남지역의 가계대출 또한 27조원에 육박하고 가계대출 이자역도 6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 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2009년도 8천억, 2010년 2조4천억, 2011년 2조5천억원의 증가로 그 증가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지난 8일 김중수 한은총재는 가계부채문제가 금융위기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는 이러한 보도 자료를 접할때면

매번 테크날리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재산을 잘 증식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재테크, 한국적 노사관계의 원형을 찾기 위한 정테크, 정보통신의 발달로 물자와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시간 창조적 기술 시테크, 모든 조직에서 발생하는 사람과 사람간의 문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풀어보자는, 그래서 너 죽고 나 살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자는 창조적 인간관계의 기술인 인테크가 그것이다. 세상이 변하면 자연히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다. 환경변화가 곧 세상의 변화인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테크날리지를, 그 기술을 발명하고 있다. 테크날리지를 중심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필자의 화두는 무엇일까. 바로 재테크다.

지난 산업화시대의 재테크를 기본으로 수명 연장에 따른 80세까지 20년을 더 살아야할 연령적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재테크라는 말을 우리 생활속에 더욱 친숙하고 익숙하고 지금부터 바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실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한국생산성본부 호남지역본부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박현

얼마 전 TV프로그램 ‘1박2일’의 출연자들 촬영팀이 인천의 백야도에 촬영을 갔다가 기상악화로 고립될 위기에 처하자 해양경찰에 긴급구조를 요청했다. 해양경찰은 경비함을 파견해 촬영팀을 육지로 이송했다. 네티즌들은 이 사안에 대해 “경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는데, 이에 해양경찰은 당시 인원이 90여명이나 돼 식량이 부족했고, 풍랑이 심해 긴급 상황으로 보고 경비함을 파견했다고 해명한 적이 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필자는 ‘만약 해양경찰이 1박2일의 구조요청을 긴급하지 않은

국가의 돈은 공짜가 아니다

것으로 보고 출동하지 않았을 경우, 또 출동 후 그 비용을 방송사에 청구했을 경우 그것이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 과연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 생각해봤다. 판단이 쉽지 않은 소송이었을 게다. 이 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은 과연 국민이 ‘국가의 인력과 장비, 시설’을 비용 없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문제가 된다. 어떤 사람이 키우던 고양이 가 나무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데 119에 신고를 했을 때, 119구조대는 출동을 해야하는가? 119구조대로서는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해야하고, 고양이 주인이 고양이를 잡으러 나무에 오르다 추락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일은 그 고양이 주인이 개인적인 일이지 119구조대에 예상하고 있는 응급상황은 아니다. 또 숲에 만취한 사람이 집에 가기 위해 119구급차를 부르는 경우, 환자가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갈 수 있는데도 119구급차를 부르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아래에서 보는 사건에 비하면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얼마 전 법원에서는 2가지 종류의 보조금 사건이 접수됐다. 하나는 여러 곳의 장애인 단체가 노동부 산하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장애인 등의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교부하는 지원금과 관련 참여근로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또 하나는 화순군이 시행하는 산양삼 재배단지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 10여 명이 수년 동안 산양삼 종묘 구입비용과 인건비 등에 관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건이다. 그 사건에서 고고인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 받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고 징역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동료 판사들은 “국가의 돈은 공짜가 아니다”라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 필자는 한 판결에

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덧붙였다.

“농민들은 국가가 주는 돈은 ‘논민 돈’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먹은 자가 임자’라는 생각으로 자부담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서류를 위조하며, 가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그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흥만 하고 자신들의 사적인 용도에 유용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보조금을 받는 농민이라는 자들은 농사보다는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논민 돈이나 찾아다니는 사람들이고, 실제 가난으로 배움이 없어 목욕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농촌에 만연된 현실이고, 이런 현상은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중략 - 그런 의미에서 유명 예능프로그램인 ‘1박2일’에도 나왔던 화순산 산양삼의 효능에 대해 본 재판장은 신뢰를 할 수 없고, 화순군이 지난 수년간 산양삼 재배사업에 지원한 보조금 수십억 원은 아무런 의미 없이 야산에 뿌려진 낙엽이었으며, 불량한 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용돈이 돼 버렸다.”

지금도 사회의 곳곳에서 국가의 돈이 낭엽이 돼 썩고 있는 건 아닐까? <광주지법 민사2단독 판사>

기고



박해진

연간 산불건수의 50% 이상(피해면적의 72%)이 3~4월에 발생한다.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 구는 산불예방을 위해 주요 등산로 및 산불 취약지 20개 구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근로자 40명을 배치시켜 산불 예방 집중 순찰을 한다. 또한 휴일 산불비상근무를 실시해 순찰력을 집중시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등산객 개개인, 영농 준비하는 개개인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일순간의 부

산불 원인 대부분 순간의 부주의

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다.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 요인별로 살펴보면 3월의 경우 논·밭두렁 소각이 가장 많았고, 4월은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밭두렁 소각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습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면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어버렸다. 무성한 잡초를 태워야 각종 병해충이 없�지고 풍년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오히려 논밭두렁을 태우게 되면 농사에 이로온 관중까지 전부 태워 없애고 돼 먹이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올 봄에는 3월 윤달이 있는 해로 수많은 묘지이장으로 산을 찾는 사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 위험이 더욱 높아져 있다. 뿐만 아니라,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산불 경각심 이안이 우려되는 상황

이다. 그간의 경험과 통계를 바탕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 산불이 유난히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아마도 선거로 행정력이 분산되고, 산불의 위험과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저하가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이를 다시 푸른 숲으로 원상복구 하는 데는 40년~100년이란 긴 세월을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한다.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처벌규정의 강도가 매우 높는데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산림이나 인접된 지역에서 불을 놓는 자, 산림에서 유품을 소각한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

물질 소지 입산 시,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시에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예전에는 산불을 낸 사람이 대부분 농촌에 거주한 고령인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또는 낮은 벌금을 부과했으나 최근에는 실형 선고가 늘어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추세다. 순간의 실수, 부주의로 평생의 명예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 이 아닐 수 없다.

산불 위험요인 발견 및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행정기관에 연락해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능동적 대처와 안전 의식 확립이 필요하다.

사소한 부주의로 막대한 산림자원이 소실되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인재(人災)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당국의 예방대책과 더불어 유관단체들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산불 예방의 최우선이다.

<광주 광산구 공원복지과장>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마련해 주세요

필자가 자원봉사를 나가는 장애인 단체에 자신도 장애인인면서 자신보다 더한 장애인을 보살피고 드리기 위해 자원봉사를 나오는 장애인이 계시다. 이분은 보통 장애인이 아니라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라서 다른 사람보다 거동이 불편하기까지 하다.

그런데 이분의 소원이 하나 있다. 그분은 영화 관람을 무척이나 좋아하시는데 휠체어를 타고는 영화보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소연하신다. 평소에는 집에서 비디오로 영화를 시청하지만 정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을 때는 우리에게 부탁해서 같이 가라고 하신다. 얼마나 영화를 보고 싶으시면 부탁

을 하실까. 아니 극장의 시설이 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 열악한 것이 안타까운 뿐이다.

현재 대부분의 영화관에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입장부터가 불가능하다. 영화관 통로 한쪽에 휠체어를 뒹아 하니 다른 관객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싫어하는 경우가 더 심경에 쓸 수밖에 없다. 그것에 신경 쓰느라 느긋하게 영화를 감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영화관이 장애인 관람석 설치 의무를 외면하고 있으니 이 같은 배려는 언제쯤에나 가능할지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글자막 처리를 한 한국영화도 거의 볼

수가 없으니 못마땅하기는 마찬가지다.

극장에다 물어보니 가끔가다 맨 앞자리를 장애인분들이 찾아오는 경우에 대비해 비워두는 적이 있기는 하다고 했다. 하지만 맨 앞자리는 스크린과 워낙 가까워서 사실상 관람이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극장에서 중간이상 좌석에 휠체

어 장애인들을 위해 일부 좌석을 장애인석으로 비워두고 배려해줘야 한다.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누리는 취미활동을 장애인들은 전장을 치르듯 힘들게 해야 한다면 이것은 복지국가라고 할 수 없다. 아니 복지국가라는 거창한 표현 이전에 최소한의 배려라고 본다.

▶이세영·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학생들 학원으로 내모는 ‘주5일제 수업’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주말 학원가에 수강생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개설된 학교의 ‘토요프로그램’ 참여율은 10%대에 그쳐 예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원가에 따르면 매주 5일제 수업에 비해 주말 수강생이 2배가량 늘었다고 한다. 국어·영어·수학을 주류로 하는 토요강좌에 중·고생들이 크게 몰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반면, 일선 학교가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토요프로그램은 신청자가 없다. 학생 참여율이 11.9%에 그쳐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학원들이 주 5일 수업제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토요프로그램은 과학·스포츠·예능교실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어졌다. 학생들은 이 중 과학·수학·음악반 등으로 구성된 토요방과후 학교를 가장 선호(전체의 50%)한 것으로 나타

났다. 스포츠, 문화·예술, 돌봄교실 등은 그다지 호응받지 못하는 편이다. 입시부담에 그나마 수학·과학을 다루는 방과후 학교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주 5일제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낮추고, 교사들이 자기계발시간을 늘릴 수 있으며, 학부모도 자녀와의 체면협착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토요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의 경우 학원이나 과외 외에는 마땅히 보낼 곳이 없다. 특히 학원비를 감당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아이들을 돌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사교육비 증가와 실력 양극화를 우려하는 이유다.

당국은 토요프로그램을 대폭 보완해 이런 부작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심화 또는 보충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입시에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편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멈춰 선 KTX 안전불감증 언제까지

KTX 열차가 또 멈춰 섰다. 지난달 29일 오전 8시32분께 광주 송정역을 출발, 목포로 달리던 KTX 산천 열차가 무안 문탄~일로 사이에 멈춰 서면서 30여 분간 운행이 중단돼 승객 80여명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KTX는 사고 이후 24분이 지난 8시56분께 운행을 재개, 종착역인 목포역에 예정시간(8시39분)보다 34분 늦은 오전 9시15분에 도착했다. 이로 인해 오전 9시 목포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제주로 향하려던 여행객 13명이 배를 놓쳐 목포역을 찾아 항의했으며, 목포지역으로 출근하던 공무원과 회사원 등 70여명은 지각사태를 빚기도 했다.

이번 사고도 기기결함으로 고장이 나면서 발생한 안전불감증이 주된 요인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KTX 안전사고는 이미 ‘고장철’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지난해 10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역주행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이윤객의 불안과 불만이 갈수록 커지

고 있지만 코레일은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형 고속열차 KTX 안전이 각종 사고의 주범이라는 데 있다.

철도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현대템이 국산 기술로 개발됐던 KTX 산천은 설계와 제작이 잘못된 불량품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코레일이 이런 엉터리 차량을 충분한 시험·시운전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노선에 투입했다니 사고가 빈발한 것은 당연하다.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자칫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정부와 코레일 측은 임기응변이 아닌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잦은 고장과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야 할 것이며, 정부·관리 부실이 주요 요인인 만큼 이에 대한 근본 해결책도 찾아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승객이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KTX를 타고 있다.

無等鼓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은 1791년 죄수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원형감옥을 고안한다. 중앙의 원형공간에 높은 감시탑을 세우고, 죄수들의 방은 감시탑 바깥의 원 둘레를 따라 배열한다.

이 이중 원형 건물의 포인트는 감시탑은 늘 어둡게 하고, 내부를 흰색 들여다 볼 수 있게 만든 수 옥시설은 밝게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죄수들은 감시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다. 자신이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에 규칙을 더 잘 지키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벤담은 창안 당시 이 감옥을 판옵티콘(panopticon)이라고 불렀다.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본다’는 의미의 ‘opticon’을 합성한 것이다. 벤담은 나아가 이를 병영이나 공장, 병원, 학교 등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최소 비용, 최소 감시로 최대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다. 여기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소수의 권리를 억누르고 희생시켜도 된다는 공리주의의 함정이 숨어있다.

그로부터 2세기가 지난 후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전자·정보감시의 확대를 판옵티콘의 감시 원리가 사회 전반에 스며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 휴대전화, 신용카드는 물론 전자주민증, 전자여권,

CCTV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는 디지털감옥을 연상케 한다.

판옵티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고위직 공무원은 물론 정치인, 재벌, 언론계 주요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2600여건의 비밀사찰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건까지 공개됐다. ‘전자 판옵티콘’ 사회에서 국민은 그렇지 않아도 알몸의 죄수 신세인데 게다가 불법사찰이러니, ‘빅 브라더(big brother)’의 절대권력을 꿈꾸는 자는 누구인가.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 (Gwangju)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for advertising and subscriptions.